

### 공동체 소식



## 부활 제2주일

주 하느님, 새로 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셨으니,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소서.



#### 4월 기도지향

- 김정원 베드로, 박말자 세실리아 가정
- 김정한 요한, 윤유나 글라라 가정

5월 기도지향 : 한봉경 베드로, 한순례 루시아 가정 / 한중문 요셉, 한정숙 마리아 가정

#### 하느님의 자비 주일

“내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심연이 열릴 것이며,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전 대양을 쏟아 부을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은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문이 모두 열린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라.”

- 성녀 파우스타 수녀의 일기, 699항 -

#### 맨하턴 공동체 야외미사

- 일시 : 5/3(토) 오전 11시
- 장소 : Tuttle Creek Lake

#### ‘성모의 밤’미사

- 일시 : 5/9(금) 오후 8시
- 장소 : 성당
- 지향 : 본당 공동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쾌유를 빌며

#### 구역회의

- 일시 : 4/27(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 기타

- 5월 신심미사는 맨하턴 야외 미사와 ‘성모의 밤’으로 대체합니다.
- 성경 쓰기와 Rice Bowl은 제대 앞 바구니에 개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Rice Bowl의 금액은 체크(혹은 캐쉬)로 변환해 주시면 교구 송금에 도움이 됩니다.
- 이번 주일, 중심미사 후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34	220	164/180	129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안광민 (야 고 보)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안지영 (카타리나)
차주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 한)
	문석찬 (요 셉)	문예나 (요 안 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 네 스)	정수한 (베 드 로)	김주연 (세실리아)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 네 스)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유경애 (아 네 스)	

####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김정애,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차주	김명은, 김화년, 박희옥, 안현숙, 전현교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4/20	145명	709불	1,150불
정수한, 김정애, 이우석, 김호원, 도태영, 김대성, 김병철(총 7가정) 성목요일(399불), 성금요일(253불), 성야(434불)			

Rice Bowl은 아직 회수 중입니다.

# 캔사스한인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교회는 오늘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의 용서를 받은 이들입니다. 이 자비에 대한 감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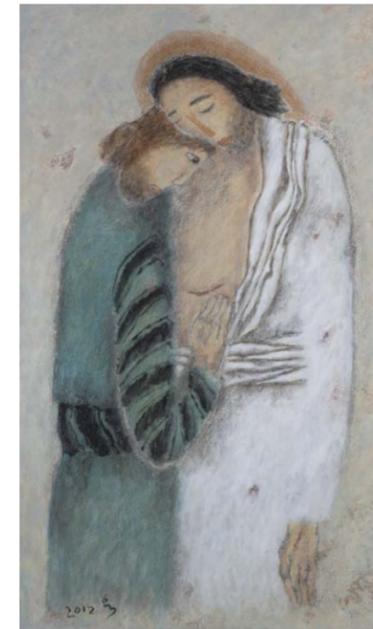
### 성화해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뿔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7-28)

믿기를 거부했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뺨속까지 파고드는 절절한 고백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2,42-47 <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



화 답 송 : ◎ 주 님 께 감 - 사 하 여 라 그 좋 으 신 분 - 을 - -



영 원 도 하 시 어 - 라 그 사 - 랑 이 - 여 -

-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 아하론의 집안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
- 나를 믿고 떼밀어 쓰러뜨리려 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
-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

제 2 독 서 : 1베드1,3-9 <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 요한 20,19-31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



## 1) 주일 미사 참례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와 사목자들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고, 이번 교구별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본당 주임 신부는 현 지침의 내용,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 및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의 성찬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신자가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를 특히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주일 모임인 것입니다(「주님의 날」, 81항).

## 2) 고해성사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90조 2항은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전 교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본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단지 무거운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특별한 관행인 판공성사 제도가 그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냉담 교우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기존의 판공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와 각 교구 단위로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왔고, 그 결실을 위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보여 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시가 바로 모든 성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자 성당을 찾아왔을 때 차갑게 닫혀 있는 문을 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닫혀 있지 말아야 할 문들은 또 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든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성사들의 문도 어떠한 이유로든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자체가 ‘문’인 세례성사가 그러합니다. 성찬례는 성사 생활의 충만함이지만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신중하고도 담대하게 숙고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사목적 귀결로 이어 집니다. 우리는 자주 은총의 촉진자보다는 은총의 세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복음의 기쁨」, 47항).

- 2014 춘계 주교회의 승인, 발췌 -



# 제 1 편 하느님 공경

## 제1-3장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2코린 1,3-4).

### < 주석 >

**주:** “주(님)”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키리오스(Kyrios)인데, 이는 히브리 말 성경의 하느님 이름인 야훼를 그리스말로 번역할 때에 쓰인 낱말이다. 이러한 명칭을 예수님께 적용함은 그리스도의 신성(神聖)을 고백함을 뜻한다(주석 성경, 신약, 661).

**위로:** 신학적으로 위로는 하느님과 관계가 있다. 하느님은 위로(慰勞)를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94,19에서 “제 속에 수많은 걱정들이 쌓여 갈 제 당신의 위로가 제 영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라고 노래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위로가) 복음과 성령께서 가져다주시는 기쁨과 위안을 가리킨다”(주석 성경, 상동).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여러 근심을 비롯하여 가난이라든가 죽음의 위험 등을 가리킨다. 특별히, 사도나 신자들이 겪는 온갖 시련을 뜻한다(주석 성경, 상동).

### < 설명 >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사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위로의 하느님”이시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자비가 충만하시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떠올릴 수 있다. 하느님께서 때론 부모를 통하여, 때론 자녀들을 통하여, 친구나 이웃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셨음을 우리는 체험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들이 어려울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이사 66,13)”.

### < 교회 가르침 >

우리 신앙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탈출 34,6) 분이라고 알려 주셨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며 ‘사랑’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1항).

### < 어록 >

- 하느님께서만 만족을 주실 수 있다(성 토마스 데 아퀴노).
- 언제나 같은 아버지 하느님이 오늘 너를 돌보듯이 내일 그리고 날마다 너를 돌보아주시리라. 그분은 너를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 평안하거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거라(성 프란치스코 드 살).
- 오, 주님! 저의 과거를 당신의 자비에, 저의 미래를 당신의 섭리에(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